

내년 11월 '프리미어12'... 5년 만에

10일부터 24일까지... 한국, 9년 만의 우승 도전

야구랭킹 상위 12개국 참가하는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가 5년 만에 열린다.

WBSC는 12일(한국시간) "2024년 가장 중요한 국제 야구대회인 WBSC프리미어12가 내년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

2015년 처음 열린 프리미어12는 WBSC 기준 세계 랭킹 상위 12개국이 모여 정상을 놓고 다투는 대회다. 초대 챔피언을 차지한 한국은 2019년 대회에서 일본에 밀려 준우승을 거뒀다. 내년 한국이 9년 만의 우승에 도전하는 대회에서 12개국은 A, B 그룹으로 나누어 모든 팀이 한 차례씩 맞붙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조별리그를 치른다. 상위 1, 2개 팀은 슈퍼 라운드에 진출한다.

슈퍼 라운드 1, 2위 팀은 프리미어12 챔피언십에 올라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경쟁하고 3, 4위 팀은 동메달 결정전을 치른다.

A조 조별리그는 미국에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며 장소는 아직 확

정되지 않았다. B조 조별리그는 11월 13일 일본 나고야돔에서 개막전을 갖고 11월14일부터 18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진행된다.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일본 도쿄 돔에서 슈퍼 라운드가 펼쳐진다. 11월 24일 결승전을 치른다.

리카르도 프라카리 WBSC 회장은 "우리의 대표 이벤트인 프리미어12의 다음 대회 날짜와 장소를 공개해 전 세계 야구 팬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2015년과 2019년 두 번의 성공적인 대회를 치른 뒤 내년 멋진 도시와 경기장에서 세 번째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프리미어12는 4년 주기로 개최돼 당초 올해 말 열려야 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스포츠가 멈춰서면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지난 3월 치러졌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일정은 9월 말 열린다.

결국 프리미어12가 5년 만인 내년 개최로 밀리게 됐다. /뉴시스



WBSC는 12일(한국시간) "2024년 가장 중요한 국제 야구대회인 WBSC프리미어12가 내년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6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 12 C조 예선전 대한민국 대 호주의 경기, 5 대 0으로 승리한 대한민국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북배드민턴협회가 12일 전북체육회에 5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한 가운데,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 체육발전 위해 써주세요"

전북배드민턴협회, 전북체육회에 발전기금 기부

전북배드민턴협회가 전북 체육 발전에 힘을 보태달라며 체육발전기금을 기부했다.

12일 전북배드민턴협회는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5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이 발전기금은 심용현 회장을 비롯한 도 배드민턴협회가 십시일반 모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체육회에 담지 된 소중한 발전기금은 전북이 체육 강도에서 체육 선진도로 거듭나는 데 쓰여

지게 된다.

도 배드민턴협회 심용현 회장은 "전북 체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체육인들이 땀을 뭉쳐야 한다"며 "배드민턴 종목 발전은 물론이고 체육으로 하나되는 전라북도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배드민턴협회를 비롯해 전북 체육 발전을 바라는 마음이 속속 담지되고 있다. /뉴시스

프로축구선수협 "악성 댓글 법적 대응... 선처 없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선수협)가 선수들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댓글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선수협은 12일 "국제프로축구선수협회(IFPRO)에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댓글 방지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며 "이에 발맞춰 한국 선수협도 선수와 팬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일부 네티즌이 선수에 대한 욕설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악성 댓글을 달아 선수는 물론 가족들도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선수 보호를 위해 변호사와 법적 대응까지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성 댓글은 선수들에게 정말 큰 상처다. 특히 모욕 및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비방과 무분별한 인신공격성 발언은 선수들의 플레이에 큰 방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수의 개인 공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찾아와 악성 메시지를 보낸다. 이 또한 예외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호흡 척척'... 항저우 AG, 개막식 총연습

예행연습에 인파 5만 명 가까이 참여
중 전통문화 계승·현대문명 전시 초점
23일 본 개막식... 24절기 중 추분 해당

제19회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성공적인 개막식을 위한 총연습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0일 중국 관영 중앙(CC) TV에 따르면 중국 측은 지난 9일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개막식 3차 예행연습을 통해 예술공연 등 개막 전 과정 점검을 이번 기에 마쳤다. 이번 연습에는 5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참여했다. 총연습은 115분 가까이 진행됐다.

주최 측은 우수한 중국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도 중화민족의 현대문명을 내보이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을 이용해 각색한 전통문화 표현으로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개막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예행연습 중 연결이 매끄럽고 역할 간 호흡이 잘 맞아떨어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번 연습 뒤 영상, 의상, 소

품, 등을 추가로 조정하고, 공식 개막식 전에 다시 전 과정 예행연습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 개막식은 24절기 중 추분(秋分)인 오는 23일 항저우 항저우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대회가 다가오자 지난 9일 방문 취재진을 지원하는 메인미디어센터(MMC)도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메인 프레젠테이션(MPC)과 국제방송센터(IBC)로 구성된 MMC는 취재진에게 출발·도착, 통·번역, 물품 대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시설이 시범 운영 운영에 들어 가면서 대회는 준비 상태로 완전히 전환했다.

45개국에서 1만25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6일 동안 경합을 이어간다. 참가 선수는 40개 종목 61개 세부 종

목에서 모두 483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한편 이번 대회는 1990 베이징 아시안게임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중국에서 열리는 세 번째 아시안게임이다. /뉴시스

스페인 법원, 성폭행·강압 등 혐의 부인 전 축구협회장 수사

루이스 루비알레스 스페인 전 축구 협회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스페인 법원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한국시간) CNN 스페인판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법원의 성명에 따라, 검찰은 성폭행 및 강압 등에 대한 혐의로 루비알레스 전 축구협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루비알레스 전 회장 지난해 말 막을 내린 2023 국제축구연맹(IF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서 스페인어 우승한 뒤 진행된 시상식에서 미드필더 헤니페르 에르모스에게 강제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

BMW 내쇼날 모터스, 장유빈 후원

항저우 AG 골프 국제대표 선발

BMW 공식 딜러 내쇼날 모터스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골프 국가대표로 선발된 장유빈 선수와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BMW 전주 전시장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말까지 내쇼날 모터스 로고가 새겨진 의류를 비롯해 다양한 BMW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장 선수에 대한 후원은 아마추어 신분으로서 이뤄진 첫 자동차 후원 협약으로 의미가 크다.

한국 골프에 차세대 유망주로 떠오른 장 선수는 300m 비거리의 장타력을 가진 한국 국가대표 랭킹 1위 선수다.

그는 지난해 국내외 대회에서 3번의 우승을 차지했으며, 후원 체결 직후 KPGA 군산CC에서도 대역전 우승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내쇼날 모터스 김성률 대표는 "아마추어 선수들의 후원이 허용되면서 브



랜드의 가치를 전달할 유망주인 장유빈 선수에게 관심을 두게 됐다"면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BMW의 간판 모델인 THE5 차량 지원을 시작으로 BMW 포커스 모델에 맞춰 주기적으로 차량으로 바꿔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쇼날 모터스는 30년 전통의 BMW 공식 딜러사로 전주의 평택, 안성, 서산, 군산, 목포 등 6개의 전시장과 5개의 서비스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첫 한국 전통 컨셉의 BMW 전주 전시장 리뉴얼 오픈함에 따라 많은 투자와 서비스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시스

***전국최초!**
전북에듀페이

학생중심 미래교육

모든 학생

맞춤형 교육비 지원

입학 지원금

학습 지원비

진로 지원비

를 지급합니다.

'23~'24년
순차 지급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